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임 상 빈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는  
‘본질명상(Quidditation)법’ 사례 연구  
- 나의 작업을 중심으로 -

202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학과  
손 수 정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는  
'본질명상(Quidditation)법' 사례 연구  
- 나의 작업을 중심으로 -

임 상 빈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손 수 정

# 인 준 서

손수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박 영 근 (인)

심사위원 \_\_\_\_\_ 조 병 왕 (인)

심사위원 \_\_\_\_\_ 임 상 빈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 개요

이 논문은 서울에서 개최된 두 개의 개인전 즉, 2021년 갤러리 도스, <인지하지 못한 것>과 2023년 플루리포텐트 아트스페이스, <살아가는 것은 사랑을 남긴다>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높아지지 않았다. 실제로 주변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근 20년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중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GDP 순위는 세계 13위로 매우 높다. 즉, 경제력과 행복지수는 큰 상관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행복의 사전적 정의는 ‘충분한 만족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충분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 나 또한 행복하게 더 잘 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삶 속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누려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관계성’이다. 즉,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예술적으로 행복하기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초월성’이다. 비근한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지가 필요하다.

예술은 우리의 삶과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있어 큰 힘을 가진 수단이다. 예술 작품을 통해 전달되는 감정과 사유와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영감을 제공하기에 예술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은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나는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 예술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는 ‘본질명상(Quidditation)법’으로 철학적으로 본질이라는 뜻을 가진 ‘quiddity’와 명상을 의미하는 ‘meditation’의 합성어로 본질에 관한 명상을 뜻한다. 내가 제시하는 모든 방법론을 통해 결국은 본질 즉, 자신에 대해 깊이 명상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예술 방법을 주장한다. 첫째, ‘관

점의 왕복'으로 삶과 사랑의 여러 측면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관조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슬기를 깨닫는다. 둘째, '수행의 방법'으로 다양한 명상의 과정에 몰입한다. 이를 통해 평상시에 생각을 실천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셋째, '초월적 경험'으로 작업적 쾌감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뛰어 넘는 예술의 힘을 체험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은 세 가지이다. 첫째, '자동화 기계'로 반대적 거리두기를 시도한다. 기계를 통해 역설적으로 인간적인 감정이나 전통적인 노동의 가치를 고찰한다. 둘째, '미니멀 추상'으로 구조의 단순화를 추구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작품의 설계를 점검하며 판단하도록 한다. 셋째, '레이어 축적'으로 역사적 궤적을 기록한다. 이를 통해 내 인생의 예술적인 의미를 파생한다.

결국, 현실적인 삶에 천착하면 '일체개고(一切皆苦)', 즉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그러나 이상적인 예술을 지향하면 '일체개락(一切皆樂)', 즉 인생은 즐거움의 연속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예술적인 힘을 방편으로, 혹은 궁극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나의 주장과 이에 따른 방법이 그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4
1. 작품의 내용적 측면 .....	4
1) 관점의 왕복: 삶과 사랑에 대하여 관조적으로 바라보기 .....	4
2) 수행의 방법: 명상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미하기 .....	6
3) 초월의 경험: 작업적 쾌감을 통해 초월적으로 행복하기 .....	7
2. 작품의 형식적 측면 .....	9
1) 자동화 기계: 반대적 거리두기로 인간미를 통찰하기 .....	9
2) 미니멀 추상: 구조의 단순화로 삶의 행복을 파악하기 .....	12
3) 레이어 축적: 궤적을 통해 삶의 의미를 생성하기 .....	14
3. 작품 분석 .....	17
1) 자동화 기계 시리즈 .....	17
① ‘물감시계’ 프로젝트 .....	17
② ‘전구’ 프로젝트 .....	19
③ ‘A Living Thing’ 프로젝트 .....	21
2) 미니멀 추상 시리즈 .....	24
① ‘물감시계’ 프로젝트 .....	24

② ‘Inside Me’ 프로젝트 .....	27
③ ‘Continuum’ 프로젝트 .....	28
3) 레이어 축적 시리즈 .....	31
① ‘Skin’ 프로젝트 .....	31
② ‘At the Moment’ 프로젝트 .....	33
Ⅲ. 결론 .....	35

참고문헌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Still-Life>, 가변설치, mixed media, 2021

[작품 2] <··· · -- · -- ··· · ···>, 34x34x34cm each, 가변설치, mixed media, 2021

[작품 3] <A Living Thing>, 가변설치, mixed media, 2023

[작품 4] <20.12.25 10:21pm- 21.01.04 11:37pm, 112.1x112.1cm>, acrylic on panel, 2020-2021 (일정시간동안 기계장치를 통해 낙하된 아크릴 이미지)

[작품 5] <20.12.10 5:59am- 20.12.16 12:44pm>, 112.1x112.1cm, acrylic on panel, 2020 (일정시간동안 기계장치를 통해 낙하된 아크릴 이미지)

[작품 6] <20.12.11 6:38pm- 20.12.12 4:02am>, 30x30cm, acrylic on panel, 2020 (일정시간동안 기계장치를 통해 낙하된 아크릴 이미지)

[작품 7] <20.12.23 12:47am- 20.12.23 8:12am>, 30x30cm, acrylic on panel, 2020 (일정시간동안 기계장치를 통해 낙하된 아크릴 이미지)

[작품 8] <20.12.26 12:39am- 20.12.29 12:02am>, 30x30cm, acrylic on panel, 2020 (일정시간동안 기계장치를 통해 낙하된 아크릴 이미지)

[작품 9] 〈Inside Me〉, 가변설치, mixed media, 2023

[작품 10] 〈Continuum〉, 가변설치, mixed media, 2023

[작품 11] 〈Skin〉, 25.1x25.1x25.1cm each, pins on apple, 2020-2021

[작품 12] 〈At the Moment〉, 40x40cm, mixed media, 2021

[작품 13] 〈At the Moment Project〉, 가변설치, 16panel

## 도 판 목 차

[도판 1] Kithe Kollwitz, The Mothers, 35.2x40cm, Woodcut in black ink on beige, moderately thick, smooth, wove paper, 1922-1923.

[도판 2] Felix Gonzalez-Torres, Untitle(Portrait of Ross in L.A.), 1991. Installed in. Luhring Augustine Hetzler Gallery, Los Angeles. 19 Oct.-16 Nov. 1991.

## I. 서 론

대한민국의 GDP 순위는 2022년 기준 세계 13위<sup>1)</sup>를 기록 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잘 사는 나라이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26명<sup>2)</sup>으로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여년 동안 한 해를 제외하고 OECD 국가 중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1위<sup>3)</sup>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자살을 한 유족의 자살률은 10만명당 586명에 이르러 우리나라 10만명당 자살률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까? 뉴스에서 소위 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왜 하는 것일까? 자살을 선택한 가족들의 자살률은 왜 이리 높을까?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너져내려 재기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자신의 삶이 끝난 것처럼 망가지게 되는 걸까?

UN이 2012년도부터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의 2023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137개국 중 대한민국은 57위<sup>4)</sup>를 기록했다. OECD 38개국 중에서도 35위로 최하위이다. 위의 조사를 통해 경제력과 행복지수는 큰 상관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복지수와 자살률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 나 역시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충분한 만족감’이다. 우리의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주는

---

1)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2)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3) OECD (2023), Suicide rates (indicator). doi: 10.1787/a82f3459-en (Accessed on 01 November 2023)

4) World Happiness Report2023, Average Life Evaluation

것은 무엇일까? 나는 관계에서의 사랑이 우리의 행복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예술적으로 행복 즉, 충분하게 만족하고자 한다. 예술의 과정과 방법을 통해 삶의 초월을 경험하여 자신의 삶을 통찰하고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본질명상(Quidditation)법’을 제시한다. Quidditation이란 철학에서 본질을 뜻하는 quiddity와 명상을 의미하는 meditation의 합성어이다. 이는 본질에 대해 명상하는 것을 뜻한다. 독일의 실존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예술의 본질에 대해 보다 본래적으로 물을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렇기에 과거에 보이지 않던 예술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sup>5)</sup> 하이데거는 예술철학에서 시작(時作)이 예술의 본질이 된다고 규정했다. 나는 하이데거가 예술의 본질에 대해 기존의 형식과 방법에서 벗어나 심미적으로 바라보는 방식을 차용하여 예술을 통해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게 하는 요소의 본질에 대해 깊게 명상하며 탐구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본질을 명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점의 전환, 수행의 방법, 초월의 경험을 제시한다. 첫 번째, 1인칭 시점에서 3인칭 시점에서의 전환을 통해 삶과 그 안에 일어나는 관계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를 통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객관적으로 고민하며 시선의 환기를 일으킨다. 삶과 사랑에 대해 낯설게 바라보며 시각의 자동화를 피하고 그를 통해 오히려 관람자의 주체성을 확보한다. 두 번째, 수행의 방법으로 명상의 과정을 반복과 축적, 미니멀을 통해 제시한다. 이를 통해 현실 생활에서도 지속적인 수행이 가능하여 관점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한다. 세 번째, 초월은 외부의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축적해온 나의 삶에 이미 있다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인생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뛰어넘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삶을 통찰하여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가치에 대해 자문하고 살아갈 힘을 예술적으로 제공한다.

---

5) 박지윤, "하이데거 예술철학에서 시작(詩作)의 의미."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2, pp.8-9 참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세 가지의 작품 형식을 제시한다. 첫 번째, 자동화 기계를 통해 관점의 전환이 용이해지고 기계적 인간미를 통찰하게 한다. 둘째, 미니멀 추상으로 구조를 단순화하고 명상의 감상을 통해 삶의 행복을 파악하게 한다. 셋째, 레이어 축적을 통해 궤적을 발견하고 축적된 시간의 역사성 즉 삶과 그 시간을 행복하게 채웠던 사랑의 관계를 복기하여 삶의 의미를 생성하게 한다.

제시한 내용과 형식을 비롯하여 심층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나와 미술계, 우리 사회에 어떠한 유의미한 성과를 이루었는지 고찰한다. 더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연구의 확장 방향성을 살펴본다.

## Ⅱ. 본 론

### 1. 작품의 내용적 측면

#### 1) 관점의 왕복: 삶과 사랑에 대하여 관조적인 태도로 바라보기

사람에겐 1인칭과 3인칭의 시점 둘 다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1인칭의 시점으로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3인칭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나는 3인칭 시점의 결핍을 보충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시점 사이의 균형을 가져 원활한 관점의 전환과 왕복을 유도한다. 왜냐하면 3인칭을 통한 관점의 전환으로 자기 자신과 주어진 환경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자신의 사안을 책임 있게 지켜보고 세세하게 이해하여 통찰력 있는 판단을 내리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1인칭과 3인칭 시점을 왕복 운동을 통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보는 관점을 전환하여 삶을 조망하는 시각을 넓힌다.

나는 사춘기 시절 ‘나’의 정체성과 1인칭 관점에 대해 혼란을 느꼈었다. 나는 나에게 ‘나’인데, 내 친구는 절대 내가 될 수 없고 그 친구에게 ‘나’는 그 친구 자신이라는 것이 너무 생경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다 자신을 지칭하는데 그 ‘나’는 누구도 중첩되지 않는 고유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때는 너무나 혼란스러웠다.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나’일까? 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이라면?”이라는 가정으로 나에게 처한 문제들을 다른 시점으로 바라보며 잘 넘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는 특정한 다른 사람의 관점보다는 마치 문학 기법의 하나인 “낮설게 하기”처럼 상황을 객

관화하여 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문제들을 바라보니 나의 감정이 너무 소모되지 않고 일어난 문제들을 의연하게 잘 해결할 수 있었다.

1인칭 시점은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삶의 주체가 자신이다. 그러다 보면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자신의 감정으로 대응하게 되어 효율적인 문제의 해결 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다. 삶이라는 긴 타임라인 속에 우리를 고뇌와 번뇌하게 하는 사건들은 비교적 단시간에 일어나는 이슈이지만 이러한 문제와 난관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생활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저버릴 수도 있다.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면 문제없는 일을 자기 시각, 자기 마음에 갇혀서 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3인칭의 시점이 필요하다. 3인칭의 시점으로 삶을 바라보면 개인이 처한 환경과 문제들을 객관화하여 볼 수 있다. 또한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3인칭의 시점을 통해 거시적으로 바라보아 삶의 큰 흐름을 인지할 수 있다. 더불어 삶의 문제들을 객관화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사랑의 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반복되는 일상과 익숙해진 환경에서 당연하게 생각했기에 느끼지 못했던 관계에 대해 3인칭의 시점으로 돌아보며 나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3인칭의 시점을 갖기 위해서는 예술의 방법론이 매우 효과적이다. 예술을 통해서 삶을 현재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도 다시 볼 수 있고, 미래의 삶의 방향성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삶을 바라보며 반성할 수 있고 우회적으로 나 자신을 환기하는데 효율적이다. 따라서 예술을 통한 관점의 전환과 왕복으로 우리는 삶에 대해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랑의 관계를 발견하여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을 받고 세상을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지면 당면하는 문제 앞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설계자와 관람자의 구도로 인생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 2) 수행의 방법: 명상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미하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명상을 통해 수행해왔다. 명상을 통해 심신 치유와 내적인 성장<sup>6)</sup>을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진정한 심신 치유와 내적인 성장을 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해왔지만 아직도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명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여전히 많아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힘들고 지친다는 것을 반증하고 현재의 삶에서 초월하여 평온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명상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명상을 통해 지속적인 수행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여가시간으로 명상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실의 일상에서 수행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시간을 내서 명상하여 안정을 찾는다. 하지만 지속적인 수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삶에서 관점의 전환을 야기하기는 어렵다. 나는 예술적인 명상의 과정을 제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수행이 가능하여지도록 한다. 예술을 통한 명상은 일반 명상과는 다르게 작품을 보며 시각적인 감각을 사용한다. 오랜 시간 작품을 바라보며 그 이미지를 면밀히 관찰하는 명상의 시간을 통해 그 이미지가 기억에 남게 된다. 이를 통해 현실 생활에서도 지속적인 수행이 가능하여 관점의 전환이 용이해진다. 명상의 과정을 예술적인 창작과 감상과 비평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음미하는 것이 고차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수행이 가능한 방법은 마인드셋을 가다듬는 것이다. 마인드셋을 가다듬으려면 돈오-점수의 자세가 필요하다. 돈오: 갑자기 깨닫고, 점수: 점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나의 작품은 축적과 반복, 미니멀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수행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첫 번째, 축적의 과정을 작품으로 보여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

6) 최윤정, 문효빈. “마음챙김 명상 체험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한국명상학회지 13.1, 2023, p55

즉각적인 축적의 단계를 관찰하게 한다. 오랜 시간 축적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을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서 시각을 통해 일차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이면을 바라보며 점층적인 명상의 수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반복의 과정을 통해 마치 우리의 삶의 루틴 들이 반복되는 듯한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반복되는 작품으로 인해 관람자에게도 오랜 시간과 이미지가 축적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수행의 과정이 익숙해지게 된다. 따라서 이 방법이 자신의 것으로 습득되고 알고리즘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신의 일상에서도 적용하는 지속적인 접근이 가능해진다. 세 번째, 미니멀의 기술을 통해 단순한 구조의 이미지를 오랫동안 면밀히 관찰하며 작품의 표면보다 그 안에 내재된 코어 등 미시적인 관찰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서 수행의 과정 역시 표면적인 곁핥기식의 수행보다는 안에 묻혀있는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돈오점수의 자세를 확립하려는 이유이다.

### 3) 초월의 경험: 작업적 쾌감을 통해 초월적으로 행복하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의식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의식주를 가져야 더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행복 즉, 초월은 외부의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축적해온 나의 삶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초월의 경험을 제공한 중요한 인물 관계이다. 할아버지는 2007년에 돌아가셨다. 16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할 물증은 많지 않다. 하지만 심증은 확실히 있다. 기억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가 어릴 적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는 지금도 분명히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동기가 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 나의 경우를 통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 간의 관계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기억을 통해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하여 나에게 행복을 선사한다. 행복은 이미 내 삶에 있었다.

이처럼 우리 삶을 복기하여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 들을 다시 떠올리면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초월은 현실 속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작품을 통해 제시한다.

더불어 나는 작가로서 작업을 하며 작품의 진행 과정에서 결과를 추론할 수 있는 초월적 쾌감을 누린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반복되는 움직임을 통해 나의 직접적인 터치가 없어도 작품이 움직이고 마치 생명력을 가진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또한 레이어가 축적된 작업을 통해 축적의 단층을 이미 알고 있는 나만의 예술적 초월감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나 역시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이지만 예술을 통해 이 타임라인을 뛰어넘어 삶의 입체적인 지형도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초월적 경험이 지금 나의 삶에 당면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술의 힘을 제공한다. 따라서 나의 작업을 관람하는 관람자 역시 삶을 복기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야 할 이유와 가치에 대해 자문하고, 초월의 과정이 내재된 나의 작품을 관찰하며 현재 자신에게 처한 고통의 시간을 초월의 행복으로 감내할 수 있도록 한다.

## 2. 작품의 형식적 측면

### 1) 자동화 기계: 반대적 거리두기로 인간미를 통찰하기

나는 인간미를 통찰해야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삶을 피상적으로 살면 충분한 만족감 즉,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의 의미는 인간미에 기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간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거리두기를 통해 진정한 인간미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관점의 전환을 통해 거리두기를 실현한다.

자동화 기계의 방법론은 관점의 전환을 연습하는데 대표적인 훈련법이다. 기계로 인간미를 표현하여 낯설게 느껴지게 되는데 이러한 낯선 경험이 관점의 전환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관점의 전환은 관찰자의 시점으로 자동화된 기계 작품을 바라보고 반복적인 기계의 움직임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게 한다.

인간적으로 인간미를 표현하는 것도 물론 인간적인 면모를 잘 감상할 수 있다. 이를테면 Kathe Kollwitz의 <The Mothers>는 엄마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있는 모습을 판화로 표현한 작품이다. 세계대전에서 아들과 손자를 잃은 작가가 자기와 같은 처지의 다른 엄마들과 부둥켜안고 우는 장면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인간의 처절한 슬픔과 비애를 처연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이것은 인간의 극한 감정을 건드리며 사랑하는 대상의 죽음을 예술적으로 한풀이하여 예술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하지만 작가의 터치가 그득히 담겨 극한의 감정을 끌어내는 이러한 작업들을 보면 작가의 몰입된 감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관람자가 자신의 감정으로 감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아쉬운 점이 있다.

하지만 자동화 프로세스의 알고리즘을 통한 기계적 인간미로 거리두기를 하면 인간적 인간미에서는 힘든 관찰자의 시점으로 감상이 가능해진다. 관람자가 작가의 감정에 대입하여 감정을 느끼는 것보다 관찰자의 시점에서 그 감정을 자기 삶

으로 대입하여 감상할 때 더 진득한 감정적인 몰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나는 기계적 인간미에 집중한다. 아이러니하지만 자동화된 기계의 거리두기 방식을 통해 더 진득한 인간의 중요한 감정적 개념 특히, 삶과 사랑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 기계의 반복된 움직임에서 초연함을 느끼고 그 움직임이 나의 삶 속에서 있었던 사랑의 관계를 복기시키기 때문이다. 기계적 인간미를 통해 어떠한 알고리즘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한 이미지가 미니멀하게 표현되어 '없을 때 실감하는 것들'에 대해 깨닫게 된다. 이를테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심,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누군가의 희생 즉, 사람 간의 관계에서 당연하게 여기거나 오랜 시간 반복되어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느끼게 된다.



[도판 1] Kithe Kollwitz, The Mothers, 35.2 × 40cm, Woodcut in black ink on beige, moderately thick, smooth, wove paper, 1922-1923.

자동화된 기계의 반복되는 실행을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으로 관점의 전환

이 용이해지고 기계의 반복된 움직임을 보며 상념에 빠지게 된다. 그 반복되는 시간 속에 함께 공존하는 나로부터 분리되어 거리를 두게 되고 이를 통해 인간미를 느끼게 된다. 이렇듯 기계적 인간미를 통해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인간과 그 역사를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관람자가 스스로를 대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인간적인 인간과 비인간적인 기계가 만남으로써 인간이 기계를 보고 기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자화상으로 자신을 대입하여 생경함과 동시에 객관적으로 감상하게 되는 아이러니이자 효용성에 주목한다.

자동화된 기계를 통해 진정한 초월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일반적인 예술 작품들은 초월이라는 주제를 외부적인 요소에 대한 동경과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나는 작품이 자동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움직임과 그 안에 이미 내재된 작동 구조가 있기에 외부를 참조할 필요가 없다. 다른 것을 통하지 않는 자가 발생적인 구조를 통해 초월적인 모든 것이 내 안에 이미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자동화 기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한다. 중력에 의한 반복과 아두이노를 통한 반복이다. 첫째, 중력에 의해 반복되는 움직임으로 거대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순리대로 움직이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말한다. 한정된 물감이 중력에 의해 떨어지고 정해진 양이 소진되면 끝나는 것이 모든 생물의 생사 법칙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는 작은 변화와 효과들이 거대한 세계의 불변한 법칙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미시적인 움직임으로 거시적인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아두이노 코딩을 통한 기계 제어로 특정한 움직임이 반복되도록 설정한다. 이는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반복되는 기계의 움직임을 통해 사람으로 하여금 상념에 빠지게 하여 감정에 집중하게 한다. 앞서 말했듯이 기계적인 움직임을 통해 3인칭의 시점으로 작품을 관람하고 느껴지는 감정을 자신의 삶에 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반복되는 움직임이 발생한다. 1초의 반복으로 1분이 되고,

1분의 반복으로 1시간이 되고 1시간의 반복으로 하루가 되고 하루의 반복으로 역사가 형성된다. 이러한 반복되는 시간의 교집합 속에 개인의 인생이 진행되고 무한할 것 같은 반복 속에 우리의 삶은 한 시점에 마침표를 찍는다. 인간의 역사는 계속 쌓여가고 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비슷한 역사가 반복된다. 이렇듯 삶 속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고 반복된다. 반복이 되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여 거시적인 시점을 통해 나의 삶의 성격을 대략 파악 가능해진다. 또한 반복으로 인해 익숙해져서 놓치고 있던 삶의 미시적인 요소들을 발견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 2) 미니멀 추상: 구조의 단순화로 삶의 행복을 파악하기

나는 미니멀 추상을 통해 명상할 때 충분한 만족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화된 구조를 보며 명상의 단계에 쉽게 진입할 수 있고 관조하며 관념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기 때문이다.

미니멀 추상의 방법론은 대표적인 수행의 방법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명상은 채워내는 것보다는 비워내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구상적인 방법론도 우리에게 일정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워내기 힘든 측면이 있다. 다양한 이미지와 조형 요소들을 바라보며 나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명상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각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니멀 추상은 자체가 비워낸 그릇이기 때문에 비워내기에 훨씬 수월하다.

추상의 강점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미니멀 추상의 방법론이 명상의 과정과 더 닮아있다. 미니멀 추상을 통한 명상은 단순한 추상적인 이미지를 관찰하기 때문에 관조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라보기 방법은 원래의 명상 속성과 많이 닮아있기에 명상적인 감상이 더 쉽게 가능해진다. 명상은 비워내는

과정이다. 현재의 삶과 해야 할 일들로부터 벗어나 차분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나에 관해 탐구하며 평온한 상태에 이르도록 수행한다. 미니멀도 비워낸 이미지이다. 이는 이미지를 통해 무언가를 제시하기보다는 관람자의 감상 여지를 충분히 비워두어 작품을 통해 자신과 깊게 대면하는 명상이 가능해진다.

둘째, 비구상적인 미니멀한 이미지를 바라보며 무엇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친절하게 제시하지 않음으로 관람자가 미지의 영역을 대면하게 되는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당혹감을 통해 일종의 숭고함을 경험하여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명상을 통해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것에 집중하며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울이 되어 자기 삶을 관조하게 한다. 즉 시각적인 감상을 뛰어넘어 감정적인 감상을 야기시킨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녹아있던 여러 관계에 대한 고찰로 행복의 의미를 찾게 된다.

셋째, 시각적인 이미지가 다채롭지 않다고 해서 감상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화된 이미지에 더 몰입하여 명상의 단계에 이르고, 일차적인 감상으로는 불가능한 초월적인 경험을 가능케 한다. 이를테면 순간적으로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디테일하고 미세한 변화들을 감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발견을 통해 자신의 삶을 관조하게 되고 시각적인 감상을 뛰어넘어 나의 삶에 있었던 어느 한 부분의 기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고 회귀시키기 때문이다. 오래 관찰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동질감을 갖고 나의 삶을 빗대어 공감할 수 있어 기억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명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복기하며 나의 행복했던 시절, 나를 행복하게 했던 사람들을 마주하고 진정한 행복, 충분한 만족감을 주는 것들을 파악하게 되길 바란다.

### 3) 레이어 축적: 궤적을 통해 삶의 의미를 생성하기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가치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삶의 주관자로서 나만의 주체적인 삶을 살 때야 비로소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레이어 축적의 방법론이 효과적이다. 레이어 축적을 통해 자신의 삶과 그 안에서 형성된 관계들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에 대한 초월적인 경험으로 자신이 원하는 가치와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레이어 축적의 방법론은 초월적인 경험을 효과적으로 가능케 하는 방법이다. 레이어의 축적으로 인해 우리의 시각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감상이 아니라 그 이면과 그 레이어가 축적된 시간의 역사성 즉 삶과 그 시간을 행복하게 채웠던 사랑의 관계를 함께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Felix Gonzalez-Torres 역시 삶, 사랑과 죽음을 축적의 형식으로 이야기한다. 〈Untitled (Portrait of Ross in L.A.)〉를 보면 사랑하는 연인의 몸무게만큼 사탕을 전시장 한쪽에 쌓아둔다.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사탕을 가져가 먹고 그 무게가 소진되면 다시 78kg이 되도록 사탕을 채운다. 사랑하는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지만 그를 기억하려 계속 소진되는 사탕을 채우는 과정을 반복한다. 작가는 나와 동일한 축적의 방법론을 사용하였지만 그리움과 공허함을 통해서 삶과 사랑을 이야기하였다. 작가한테는 고통스러운 사랑하는 대상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잠깐의 달콤함으로 소진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결국 그 사랑하는 대상은 곁에 없고 그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리움의 무한한 반복과 공허함만 남게 되는 것을 표현하였다.



[도판 2] Felix Gonzalez-Torres, Untitle (Portrait of Ross in L.A.), 1991. Installed in. Luhring Augustine Hetzler Gallery, Los Angeles. 19 Oct. - 16 Nov. 1991.

나도 축적의 과정을 통한 삶과 사랑한 관계의 발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Felix Gonzalez-Torres와는 다르게 허무주의가 아닌 삶에서 행복을 준 관계, 삶의 이유와 가치의 발견에 더 주목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 축적되는 과정을 바라보는 것을 필요로 한다.

오랜 시간 축적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을 긴 호흡을 통해 바라보면서 시각을 통해 일차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이면을 바라보게 된다. 차분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바라보며 사유하게 되는데, 명상과 수행은 단시간에 일필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축적을 통해 오랜 시간 바라보면 단시간 동안 감상하던 때와 다르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 이를테면 움직임이 없을 것만 같은 대상이 아주 느리지만 분주하고 끊임없이 움직임을 만들어 내거나, 밋밋해 보이던 면이 여러 굴곡과 생채기를 가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표면적인 이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축적을 통해 담긴 시간, 역사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자세로 임하여 관점을 전환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대하여 집중하게 된다. 특히 삶과 그 안에 일어나는 사랑의 관계들을 떠올리며 삶의 의미를 스스로 명상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수행의 방법으로 다양한 명상의 과정에 몰입하고, 이를 통해 평상시에 생각을 실천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명상의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의 삶과 그 안에 형성된 관계,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떠한 관계를 통해 사랑과 행복을 느끼는지, 나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된다. 즉, 거시적인 통찰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진짜 가치 있는 미시적인 요소를 발견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명상 수행의 방법을 통해 인생의 시시콜콜한 사건들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치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관자가 된다.

### 3. 작품 분석

#### 1) 자동화 기계 시리즈

##### ① ‘물감시계’ 프로젝트



[작품 1] Still-Life, 가변설치, mixed media, 2021

나는 이 작업을 통해서 ‘Let it be’의 자세로 행복을 표현했다. 진정한 행복은 꾸며내고 억지로 잡으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오랫동안 바라보며 기다릴 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력에 의해 작동되고 내가 억지로 제어하지 않고 놔두어 스스로 작동되는 것이 자동화 기계와 행복의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작품 1]은 초 단위로 떨어지는 물감이 시계가 되어 할당량의 물감을 소진하고 그 소진된 물감이 판넬에 쌓이는 작업이다. 이는 아주 간단한 기계 방식을 이

용한다. 물감이 담긴 통을 공중에 달고 밸브를 통해 하단부에 위치한 입구의 개폐를 조절한다. 오로지 중력에 의해서 물감들은 아래로 떨어져 판넬에 쌓인다. 자동화된 기계 장치를 사용하지만, 이는 자연의 법칙, 순리대로 움직인다.

한 방울이 점이 되어 시각을 나타내고 그 떨어지는 움직임이 시간이 되어 쌓인다. 무한할 것 같은 반복적인 움직임에서 결국에는 소진되고 마는 유한성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기계의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 기계적 인간미를 거리두기 하여 관찰자의 시점으로 관람하기에 용이하도록 한다. 중력에 의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물감 방울들을 보며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고 느끼게 되고 삶과 행복 그리고 그 끝인 죽음에 대해 관찰자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된다.

모래시계처럼 물감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이 스톱워치처럼 느껴진다. 모래시계는 다시 뒤집어 시간을 측정할 수 있지만 이 작업은 되돌릴 수 없다. 즉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떨어지고 나면 그대로 덩어리째 굳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속성이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찰나의 시각들을 거쳐 나름의 한정적인 시간을 살아간다. 그리고 모두가 끝을 맞이한다. 일종의 바니타스를 기계적인 언어로 제시하며 물감이 떨어지는 과정 즉, 삶의 과정 중에서 행복을 느끼며 진행의 과정을 통해 아직 살아있는 생명력을 만끽하길 원했다.

나는 작업을 하며 물감이 떨어지는 것을 오랜 시간동안 지켜보았다. 멍하니 떨어지는 물감을 바라보고 있으면 줄지 않을 것 같던 많은 양의 물감이 통에서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물감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내 인생의 정확한 유통기한은 알 수 없지만 내 삶 역시 소진되어 가는 느낌을 받았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하니 이 한 방울의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이 들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이었다. 한 덩어리로 마무리되는 나의 인생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의 교집합으로 흘러보내리라는 다짐을 하였다.

② ‘전구’ 프로젝트



[작품 2] ··· ··· ··· ··· ··· ··· ··· , 34x34x34cm each, 가변설치,  
mixed media, 2021

나는 행복이란 자신의 기억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삶을 복기하여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그 기억을 원동력으로 삼아 삶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버려진 전구에 다시 제 기능을 하게끔 부여함으로써 우리에게 행복한 순간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품 2]는 제 역할을 다하고 버려진 전구를 다시 수집해 외부 조명을 통해 빛을 투사하는 설치 작업이다. 전구가 스스로 빛을 내는 듯해 보이지만 그 빛은 다른 조명 장치에 의한 것이다. 전구가 빛을 낼 당시에는 빛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제 기능을 잃고 나니 재활용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쓸모없는 물건이 되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 곁에 있는 많은 관계들이 당연하게 보이지만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인생의 공허함과 불행을 느끼고 그 제야 그것들에 대해 소중함과 애뜻함을 가지게 된다.

다른 조명에 의해 빛이 나게 된 전구가 나뉘는 속도대로 깜빡이는 빛을 품게 됨으로써 하나의 모스부호를 나타낸다. REMBER. 기억이라는 단어를 모스부호로 반복해서 보낸다. 이는 삶의 많은 행복의 요소들과 더불어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기억하게 하는 일종의 메시지다.

버려진 전구에 아두이노 코딩으로 제어된 조명을 비춘다. 이는 마치 전구가 다시 생명력을 갖게 되어 빛을 뿜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바라보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감정적으로 감상하게 된다. 기계적인 거리두기가 오히려 인간미를 드러내어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삶과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비단 '전구의 삶'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전구를 통해 나를 대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관찰자의 시점으로 복기하며 나의 삶을 유의미하게 채운 요소들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으며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할 때였는지 생각하고 그 기억을 원동력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도록 제시한다.

③ ‘A Living Thing’ 프로젝트



[작품 3]



[작품 3]

[작품 3] A Living Thing, 가변설치, mixed media, 2023

행복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감각하여 느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감각할 수 있다는 것은 무언가 실존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자동화 기계를 통해 시각을 비롯하여 청각과 후각을 자극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다.

[작품 3]은 시각, 청각, 후각을 감각하게 하는 설치작품이다. 동그란 형태의 커다란 비닐이 축 쳐진 채 공중에 달린 형식으로 비닐 아래에 위치한 송풍기가 사운드가 재생되는 동안에만 작동하여 비닐 안을 공기로 가득 채운다. 사운드가 나오지 않는 동안에는 송풍기도 작동하지 않아 비닐은 다시 축 쳐지게 된다. 사운드는 할아버지와 기억을 서술한 문장이 가나다순으로 재배치되어 한 음절씩 한 문장 단위로 재생된다. 이는 할아버지의 생명이 존재했다는 것을 나의 기억으

로 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함과 동시에 삶과 죽음의 경계가 얼마나 얇고 가볍게 느껴지는지 표현하였다. 시각적으로 볼 때 사람의 몸인 덩어리가 그 사람이라고 인식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생명의 상징인 호흡이 사라지면 사람이 아니라 혐오적인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사람이 진정 살아있는 것은 가시적인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것에 의하여 결부된다는 것임을 생각하게 되었다. 생명이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연약하고 비가시적인 속성을 비닐에 빚대어 표현하여 나의 기억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는다. 할아버지의 기억의 문장들이 가나다순으로 재배치 된 것은 기억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해되고 재배치되어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송풍기가 작동하며 어떠한 향이 함께 공간을 채우게 되는데 이는 할아버지와 그 시간에 대한 기억의 향수를 일으키는 향으로 작용한다.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방식을 구상적인 이미지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자동화 기계의 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직접적인 감각을 체감하도록 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과 물질이 아닌 행복한 기억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고자 반복해서 움직이는 기계로 몸의 자극을 주었다. 실체가 없는 대상을 감각함으로써 생생한 생명력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자동화 기계를 구현하기 위해 아두이노 코딩의 방법을 사용한다. 코딩을 통해 원하는 제어 형식의 코드를 입력하고 전선을 잘라 중간에 개입시켜 설정한 값에 따라 움직이게 한다. 설정값만 입력하는 형식으로 개입을 최소화하고 움직임을 발생시켜 미니멀한 기계적 인간미를 나타낸다. 이로써 인간의 중요한 감정적 개념 특히 삶과 사랑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감각적으로 감상하도록 한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할아버지의 죽음은 생명의 부재로 인해 겪는 첫 이별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참으로도 미묘했다. 더 이상 어떠한 감각으로도 마주할 수 없다는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이렇듯 나는 더이상 실존하지 않는 할아버지의 존재 즉, 할아버지의 생명을 나의 기억을 통해 탐구하고

증명하고자 한다. 그 기억의 근간에는 사랑이 존재한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있게 하였고 그 사랑으로 인해 할아버지의 생명이 진 이후에도 그의 생명과 사랑을 기억한다. 하지만 작품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직접적인 이미지로 드러내지 않는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과 같은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 실존하지 않는 대상과 행복했던 기억을 감각한다. 직접적인 이미지가 없는 것은 기억은 실체가 없기 때문이고, 실체가 없는 대상을 감각적으로 감상하도록 하여 할아버지의 실존을 느끼게 한다. 할아버지에 관한 기억의 탐구는 그의 생명과 존재에 대한 증명이자 나의 생명의 근원과 삶의 행복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다.

## 2) 미니멀 추상 시리즈

### ① ‘물감시계’ 프로젝트



[작품 4]



[작품 5]

[작품 4] 20.12.25 10:21pm- 21.01.04 11:37pm, 112.1x112.1cm, acrylic on panel, 2020-2021  
(일정시간동안 기계장치를 통해 낙하된 아크릴 이미지)

[작품 5] 20.12.10 5:59am- 20.12.16 12:44pm, 112.1x112.1cm, acrylic on panel, 2020  
(일정시간동안 기계장치를 통해 낙하된 아크릴 이미지)

뮤트의 상태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뮤트란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나 미디 컨트롤러, 믹서 따위에서 원하는 트랙이나 채널을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명령 혹은 단추<sup>7)</sup>를 의미한다. 나는 이 단어를 미술 범주로 가져와 구상의 의지가 없는 이미지의 무의 상태로 표현하고자 한다. 그림을 구상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의지를 제거하여 미니멀한 흔적과 노동의 과정만을 결과적

---

7) 뮤트, 네이버 사전,  
2023.11.23,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B%AE%A4%ED%8A%B8>

으로 미니멀한 추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순수한 본연의 상태를 관찰하고 나의 본질을 탐구하게 됨으로써 살아가는 이유, 행복의 요소를 찾도록 도와준다. 이 작품은 뮤트의 상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적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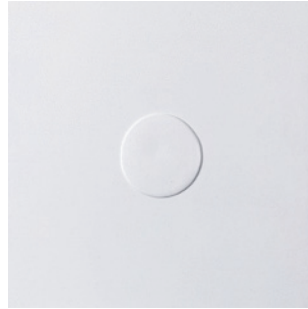
[작품 4]에서부터 [작품 8]은 물감시계 프로젝트의 설치 작업인 [작품 1]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다. 물감시계를 통해 한 방울씩 떨어진 물감들은 언제 수많은 개체들로 이루어졌냐는 듯이 한 덩어리로 마무리된다. 나는 인생을 이 물감시계에 비유했다. 우리는 찰나의 시각들을 거쳐 나뉘는 시간들을 살아간다. 그리고 모두가 끝을 맞이한다. 이는 더이상 증식되지 않는 삶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마감된다. 인생이라면 삶의 끝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중 일이라며 무관심하고 진부하게 여기며 자신에게 시간은 관대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이 작품처럼 우리의 삶도 한 덩어리로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을 미리보기로 보여주며 자신의 삶과 견주어 보게 된다. 날짜와 시간으로만 표기된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감된 후 묘비에 기록되는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지도록 했다. 이렇게 제한된 인생 속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스스로 관념하며 나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모색하게 된다.

결과물만 보면 아주 미니멀한 추상화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오래 지켜보면 작은 물감방울들이 모여 점점 부피가 늘어나며 생긴 나이트와 같은 결도 보이고, 오랜시간 떨어뜨릴 때 그 공간의 먼지가 붙은 것도 보이고, 물감방울이 떨어지며 생긴 작은 기포들도 관찰할 수 있다. 오랜 시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 미세한 변화들을 감지하며 나의 삶은 어떠한 덩어리가 지고 어떠한 미세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복기하도록 한다.



[작품 6]

[작품 6] 20.12.11 6:38pm- 20.12.12 4:02am, 30x30cm, acrylic on panel, 2020  
(일정시간동안 기계장치를 통해 낙하된 아크릴 이미지)



[작품 7]

[작품 7] 20.12.23 12:47am- 20.12.23 8:12am, 30x30cm, acrylic on panel, 2020  
(일정시간동안 기계장치를 통해 낙하된 아크릴 이미지)



[작품 8]

[작품 8] 20.12.26 12:39am- 20.12.29 12:02am, 30x30cm, acrylic on panel, 2020  
(일정시간동안 기계장치를 통해 낙하된 아크릴 이미지)

하얀색의 물감만을 사용하여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양감을 가진 덩어리를 볼 수 있다. 이는 미니멀하고 비어있는 색상 즉 뮤트의 상태를 통해 자신의 삶을 대입하여 감상하도록 한다. 일종의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단순한 색상의 이미지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깊은 생각의 단계 즉, 명상에 이르고 자기 삶을 초월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로써 나의 삶의 덩어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유의미한 상념에 빠지게 된다.

② ‘Inside Me’ 프로젝트



[작품 9] Inside Me, 가변설치, mixed media, 2023

행복은 일차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거둬의 관찰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 거울에 반사되어 벽에 비치는 단순한 과정과 단순한 결과물의 이미지인 미니멀 추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깊이 자기 명상의 단계에 이르게 한다. 같은 빛이 여러 색상을 띠는 빛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나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작품 9]는 프리즘에 빛을 투과시켜 거울에 투영한 설치작품이다. 조명이 작은 프리즘을 비추고 그 빛은 프리즘을 통과하며 여러 색상으로 분산된다. 분산된 빛의 색상들이 거울에 부딪혀 맞은편 벽에 투사된다. 거울은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는 매개체이다. 하지만 이 작업은 거울을 통해 나의 외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갈래를 마주하도록 한다. 빛은 나를 대신하는 소재로 사용되고, 프리즘을 통해 나온 여러 색상들은 나의 근원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무엇이 나를 구성하고,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지, 나의 행복은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를 제시한다. 나를 보면 나를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나의 내면을 채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 나를 알 수 있다.

조명과 프리즘, 거울을 이용한 단순한 설치 작업을 통해 무지개빛이 나타나는 미니멀한 작업이지만, 조명이 프리즘을 투영하고 그 빛이 거울에 부딪혀 반사되어 벽에 상이 맺히는 시선의 전환을 통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그것이 있기까지의 과정 즉 과거의 시간, 기억에 집중하고자 한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고 특히 나의 삶을 가치 있게 했던, 나를 행복하게 했던 일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 기억의 한 부분으로 회귀하게 된다.

### ③ ‘Continuum’ 프로젝트



[작품 10] Continuum, 가변설치, mixed media, 2023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이미지를 뮤트한 상태가 행복을 생동하게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미지가 없는데도 알 수 없는 기계 장치로 사운드를 듣고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더 절절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으로 행복의 기억으로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해진다.

[작품 10]은 입구가 세 개인 유연한관이 서로 얽히고설켜 하나의 덩어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설치작품이자 인터랙티브 작품이다. 가운데의 입구는 유연한관에 말을 하는 마이크의 역할이고 나머지 두 개의 입구는 말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스피커의 역할을 한다. 이 작품을 통해 할아버지와 나의 기억을 나 자신에게 들려줌으로써 할아버지의 존재를 회상할 뿐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자각을 하게 한다. 다른 감상자들 또한 타자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본인에게 들려줌으로써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자신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누군가를 회상하며 그의 생명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그 기억을 청각을 통해 복기함으로써 현실에서 과거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시 마주할 수 있게 된다.



[작품 10] Continuum, 가변설치, mixed media,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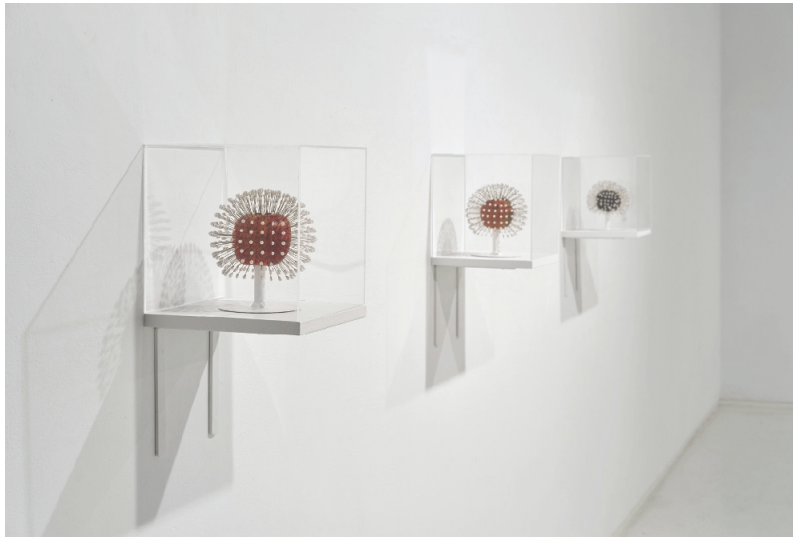
자신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호흡이 귓가의 닿는 생경한 경험을 제시한다. 열기설기한 오브제는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형태화한 것으로 이 작품이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며 나와 할아버지를 이어주고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기억을 말하는 이와 그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전혀 할아버지의 이미지가 없지만 사운드를 통해 할아버지를 마주하는 것과 동일시하게 되고 감정을 신게 된다. 이러한 의외성을 통해 진정으로 행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유효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미니멀한 추상을 통해 할아버지 답지 않음에서 할아버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나의 목소리로 내가 사랑했던 대상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상당히 묘했고 감정이 북받쳤다. 내가 그 대상을 기억하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 내가 받았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행복한 순간으로 돌아가 그 대상과 마주하는 것 같은 시간이었다.

### 3) 레이어 축적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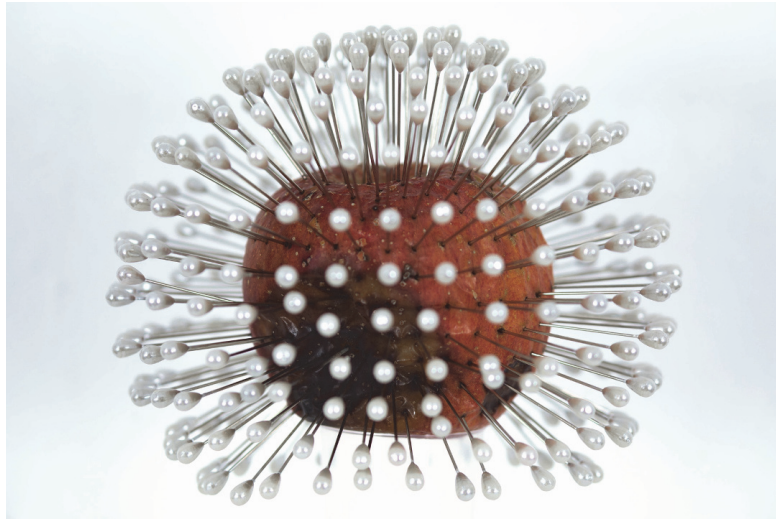
#### ① 'Skin' 프로젝트



[작품 11] Skin, 25.1x25.1x25.1cm each, pins on apple, 2020-2021

행복은 나중을 위해 미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주어진 대로 누리는 것이다. 축적을 통해 삶의 유한함을 보여주고 유한한 삶에서 지금 당장 행복을 만끽하도록 제시한다. 이 작품은 두 가지가 축적된다. 사과 위에 핀이 축적되고 핀이 축적된 사과에 시간이 축적된다.

[작품 11]은 생물인 사과에 핀을 구의 형태로 꽂아 부패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겉치레와 표면적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의 허망한 욕구를 사과와 핀에 빚대어 표현했다. 반짝이고 화려하지만 키치적인 핀이 아름다운 구의 형태로 울퉁불퉁한 사과의 진짜 스킨을 가리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 핀이 축적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과는 계속해서 더 썩어간다.



[작품 11] Skin, 25.1x25.1x25.1cm each, pins on apple, 2020-2021,  
detail

화려해지는 걸표면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한다. 이를 통해 아름다움, 완전함에 도달하고자 하지만 그럴수록 불완전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주려고 한다. 즉, 축적의 과정을 통해 삶의 유한함을 인지하고 더 나은 형편이 되고 난 후 삶을 누리고 행복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② ‘At the Moment’ 프로젝트



[작품 12]



[작품 12]

[작품 12] At the Moment, 40x40cm, mixed media, 2021

행복은 잠시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 축적되어 오랫동안 여운을 준다. 행복은 축적을 통해 자각하게 되는데, 오랜 시간 축적되는 여정 위에서 비로소 꽃 피우게 된다. 오랜 시간 축적이 되려면 지금의 시간이 계속해서 축적되어야 한다. 고로 지금의 행복한 순간들이 쌓여야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을 표현한다.

[작품 12]는 녹아서 흘러내린 듯한 사물의 이미지로 구현되는 프로젝트이다. 보이는 이미지가 명확한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고, 원색의 색상들이 섞이지 않은 채 레이어화 되어 쌓여있다. 이는 나를 구성하는 나의 시간들 즉, 간직할 수 없는 찰나의 순간들을 유연화된 오브제로 물체화시킨다. 이는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이자 지금의 순간을 행복하게 누려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죽음을 잘 인지하지 않는 것처럼, 금세 과거의 시간이 되는 순간 즉, 현재 또한 너무 쉽게 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히 내가 겪은 시간이지만 찰나로 흘러가 버리는 순간에 대한 이미지를 고착된 형태가 아닌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유동적인 이미지로 표현한다. 순간은 선명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들은 흐려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순간을 포착하여 원색의 이미지로 강렬하게 보존하고, 또 다른 순간의 색상들이 겹쳐도 서로 섞이지 않고 그 흔적들이 서로에게 나타나 중첩되며 쌓이는 이미지를 형상화한다. 색상 레이어는 나의 삶에 대한 애착이자 기념비로써 존재하며 행복 저장소의 역할을 한다.



[작품 13] At the Moment Series, 16panel

### Ⅲ. 결 론

이 논문은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는 본질명상(Quidditation)법'사례 연구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작품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삶의 초월을 경험하여 자신의 삶을 통찰하고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예술의 과정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관점의 전환을 통해 3인칭의 시점으로 삶과 그 안에 일어나는 사랑의 관계를 바라보면 관조적인 태도로 삶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이겨내고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것을 자동화 기계 형식을 통해 작품으로 풀어보았는데 기계를 통한 인간미의 통찰이 초연하게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기계 방식으로 인간미를 표현하는 방법이 통상적으로 예술계에서는 인간에 가깝게 재현하는 방식으로 보여지곤 한다. 하지만 나의 작업은 기계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로 작용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반복되는 기계의 프로세싱을 통해 인체의 감각을 동반하여 감상하도록 하는 것이 기억의 감정을 자극하여 관점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동화된 기계 작품이 더 다양한 사람의 감각을 자극해 인간미를 더 생생하게 느끼도록 발전시킬 예정이다.

둘째, 수행의 방법으로 예술을 통한 명상의 과정을 제시하여 돈오점수의 자세를 확립하겠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것을 미니멀 추상의 형식을 통해 단순화된 구조의 작품으로 실현하였다. 단순한 구조와 미니멀한 색상, 이미지를 통해 오랫동안 작품을 관조하며 명상의 단계에 이르고 긴 명상의 시간을 통해 삶을 관조하는 것으로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느꼈던 지점을 파악하게 되었다. 하지만 예술적 명상을 통해 삶을 관조하는 것이 행복한 순간을 복기하는 것이 원활히 이어지

지 않은 것 같았다. 미니멀 추상을 통한 명상이 감상하는 사람의 내밀한 개인적인 과거의 역사까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셋째, 초월의 경험을 통해 행복 즉, 충분한 만족감은 내 안에 이미 있고, 현실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것을 레이어 축적 방식을 통해 표면적인 감상뿐만 아니라 레이어가 축적된 시간의 역사성을 비롯하여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축적을 통한 만족감이 있었다. 나의 기억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미 내 안에 충만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삶과 사랑의 관계를 되짚어보며 나의 행복했던 순간, 내가 삶에 대해 충분히 만족했던 시기들을 떠올릴 수 있었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사랑의 대상이 만약 지금도 내 곁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싶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더 나은 내가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나의 작품이 던지는 화두가 자살을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일차적 예방 장치는 아니지만, 현실의 문제와 상처받은 마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행복했던 기억을 상기시켜 그것으로 위로받고 살아갈 힘을 받기를 바란다. 또한 자동화 기계의 작품들을 통해 세상의 많은 일들을 자기의 힘으로 부여잡고 성취하려는 경쟁 속에 지친 사람들이 “Let it be”의 자세로 주변을 둘러보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어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를 위해 노력해주고 많은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축복의 존재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나는 자동화 기계의 방식을 통해 내려놓음의 가치를 보여주었다. 미술사적으로 많은 미술 현장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많이 그려왔고 그리고자 하는데, 나는 극단적으로 그리는 행위를 배제하고 작품의 작동을 위한 세팅만 하여 관조함으로써 오히려 초월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 논문의

성과이다. 그러는 행위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은 서정주의에 올인하는 경향이 있다. 마치 의식보다 무의식이 더 큰 영역인 것처럼 나는 서정주의를 포함한 비서정주의로 큰 영역을 포괄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행복론을 미술계에서 넓은 스펙트럼으로 탐구했다. 행복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내가 발견한 충분한 만족감의 방법론은 과거의 기억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방법론으로 행복론의 범주를 확장했다.

나와 나의 삶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 보다 물질, 지위, 업적이 중요시해지며 우울증과 공황장애, 자살 등 비관적인 개인의 질병이 늘어 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예술을 통해 ‘나’에게 집중하며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였다. 행복한 개인이 많아져야 행복한 집단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된다. 이 연구를 통해 행복한 개인이 많아지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데 일조하여 마음의 병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이 연구를 상황과 맥락에 따라 예술적인 힘을 방편으로, 혹은 궁극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여 ‘일체개락(一切皆樂)’ 인생이 즐거움의 연속이길 바란다.

## 참 고 문 헌

- 박지윤. "하이데거 예술철학에서 시작(詩作)의 의미."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2022
- 박창용. "하이데거의 예술철학." 국내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2009
- 임상빈. 『예술방법론』, 박영사, 2022
- 최윤정, 문효빈. "마음챙김 명상 체험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한국명상학회지 13.1, p43-64, 2023
- 최진영, 이한경. "OECD 회원국 심리사 제도를 활용한 대한민국 정신건강 체계 효과성 제고 방안", 한국심리학회지:일반, 41.3, p221-242, 2022

# ABSTRACT

## A Case Study on Attaining Satisfactory Contentment through the 'Quidditation' Method

– Centered on My Works –

Son, Soo jeong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revolves around a research study conducted with a focus on two solo exhibitions held in Seoul, namely, "⟨The Unrecognized⟩" at Gallery Dos in 2021 and "⟨Living Leaves Love⟩" at Pluripotent Art Space in 2023. Against the backdrop of historically stagnant happiness indices among the Korean population, despite notable economic prowess reflected in the country's high GDP ranking, the paper delves into the disconnection between economic indicators and happiness metrics.

Defining happiness in terms of "sufficient satisfaction," the paper poses the fundamental question of how one can attain such satisfaction and elevate happiness indices. Emphasizing the pivotal role of 'relationality,' the author asserts that meaningful connections and the exchange of love play a crucial

role in achieving satisfaction. Furthermore, the pursuit of artistic fulfillment emerges as a key element in the quest for happiness, with a focus on 'transcendence'—the need to surpass the limitations of mundane existence.

Art, as a powerful means of expressing and comprehending emotions and thoughts, is presented as a vital tool for resolving existential questions. To cultivate sufficient contentment, the paper introduces the "Quidditation Method," a synthesis of the philosophical concept of 'quiddity' denoting essence and 'meditation.' The proposed methodologies aim to encourage deep contemplation of one's essence through various artistic approaches.

Three primary artistic methods are advocated in the paper. Firstly, 'Perspective Reciprocity' directs attention to multiple facets of life and love, fostering a contemplative stance towards life and an understanding of wisdom. Secondly, 'Method of Practice' involves immersive engagement with diverse meditation processes, acquiring practical approaches to applying thoughts in everyday life. Lastly, 'Transcendent Experience' concentrates on the exhilaration derived from artistic endeavors, providing a tangible experience of art's power to overcome challenges.

The paper also introduces three representative methodologies: 'Automated Contrivance,' encouraging a distancing approach through automation to reflect paradoxically on human emotions and traditional labor values; 'Minimal Abstraction,' seeking the simplification of structures to review and judge overall artistic designs; and 'Layer Accumulation,' recording historical trajectories to derive the artistic meaning of one's life.

In conclusion, the paper contends that while life may be inherently challenging, adopting an idealized approach through art can transform it into

a continuous source of joy. The ability to harness artistic power as a means or ultimate purpose, depending on the situation and context, is deemed essential. The author hopes that the presented arguments and methodologies contribute to enhancing this capacity for utilization and, in turn, lead to a more fulfilling life.